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2년 01월 17일

감 수 김태일 해운물류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6

탱커선

18

중고선

22

주요 해운지표

25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16,948달러/일 기록, 브라질 폭우로 주요 광산 운영 및 석탄 터미널 운영 중단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지난 주 대비 15.24 하락한 5,094.36을 기록, 9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

탱커선

지난주 유조선 운임지수(WS)는 대비 0.7p 하락한 36.4 기록, 대부분의 항로 수급불균형 현상 지속되면서 시황 부진

이호춘 해운빅데이터연구 센터장 / leehochoon@kmi.re.kr | 051-797-4623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전문연구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항만 대기일수 증가로 화주의 금융비용 증가

- ▶ 항만 혼잡으로 인한 화물 운송기간 증가는 화주들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짐
 - 세계 주요 항만의 혼잡은 2021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으며 LA/LB항에 대기척수는 100척에 달함
 - 물류 컨설팅 기업인 프로젝트44(project44)에 따르면 2021년 1월~11월 LA/LB항에서 대기한 화물의 가치는 총 2,3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팬데믹 이전 중국에서 LA까지 운송기간은 통관을 포함해 평균 22일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대기일수 17.6일을 고려하면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 운송 시간 증가에 따른 화주의 금융비용 증가는 TEU당 106달러/월로 추정됨
 - 프로젝트44는 연간 이자율 3.2%, TEU당 평균 가치를 4만 달러로 계산한 결과 한달 지연에 따른 화주의 금융비용 증가는 106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이를 2021년 1월~11월 사이 LA/LB항에서 처리된 화물에 적용하면 3.2억 달러의 추가 금융비용이 화주에게 발생함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9478/Supply-chain-delays-add-to-shipper-finance-costs>

최건우 전문연구원

051-797-4638, ak8102@kmi.re.kr

머스크, 항만 정체로 인한 공급망 혼잡 장기화 경고

- ▶ 글로벌 공급망 정체 현상이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항만들은 항만 정체로 인한 화물 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머스크가 세계 주요 항만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2022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혼잡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아직도 팬데믹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화물 운송 능력 저하로 이어져 공급망 정체를 야기시킴
- ▶ 유럽에서는 항만 대기 시간이 길어져 야드 장치율이 크게 상승함
 -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 North Sea Terminal의 야드 장치율은 130%까지 상승했으며, 함부르크 유로게이트(Eurogate) 및 마스블락테(Maasvlakte) II 터미널도 100% 이상의 야드 장치율을 기록함
 - 유럽 북부 대부분의 항만은 1-4일 선박 기항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국 항만은 7-10일까지 지연이 발생함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9484/Maersk-warns-port-congestion-is-continuing-to-impact-supply-chains>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인도네시아 석탄 선박 37척 출항 허가

- ▶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The Co-ordinating Ministry of Maritime and Investment Affairs)는 15 일분의 발전용 석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고 석탄 생산업체들이 내수 석탄 공급 의무화(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정책을 이행함에 따라 석탄 수출 허용함
 - 루훗 판자이탄(Luhut Pan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점진적 석탄수출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석탄 생산업체와 정부 기관 회의를 통해 1월 13일 37척의 선박의 석탄 수출을 허용했으나 아직 석탄 선적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음
 - 국영 전력기업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의 석탄 공급 부족은 광범위한 블랙아웃에 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자국 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석탄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의 로비 역시 석탄 수출 금지 완화에 도움을 줌
- ▶ 해양투자조정부는 PLN과의 석탄 매매 계약 및 DMO 정책을 100% 이행한 석탄 생산업체에 석탄 수출을 허용할 것이며, 석탄 공급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 조건을 지키지 못한 생산업체에 관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 밝힘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9505/Indonesia-allows-37-coal-ships-to-resume-exports>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브라질 폭우 여파, 케이프선 운임 급락

- ▶ 브라질 광산 지역 폭우가 철광석 수출 중단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1월 14일 케이프선 현물 운임은 일일 12,407달러로 전일 대비 14%, 주초(1월 10일) 대비 41% 하락했음
 - 폭우로 인해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인 발레(Vale)사는 일부 채굴작업의 무기한 중단을 공표했으며, 애로우 쉽브로킹(Arrow Shipbroking)에 따르면 브라질의 광산 지역의 강우로 인한 채굴작업 지연은 건화물선 운임 하락에 영향을 줌
 - 현재 브라질 철광석 일일 생산량은 300,000톤이며, 채굴 중단의 원인이 홍수와 관련한 운송 장애일 경우 철광석 생산량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으나, 광미댐(tailings dams)의 안전에 관한 우려일 경우 철광석 생산량 감소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음
- ▶ 선박 중개업체 브레마(Braemar ACM)는 다수의 브라질 광산에서 1월 말에 예정되었던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건화물선 관련 수요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면 건화물선 운임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벙커C유 가격 상승 및 브라질 수출 감소는 선주들의 선적 지연을 강화하는 요인이며, 호주와 말레이시아 항만의 보수로 인해 건화물선 수요 역시 늘어나질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선물 운임에도 현재의 현물가격의 추이를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주 19,000달러였던 2월물의 가격이 1월 13일 기준 12,750달러까지 하락했음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9520/Capesizes-in-freefall-as-concerns-over-Brazil-remain>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카자흐스탄, 정치적 혼란과 물류 문제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발생

- ▶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 텅기즈(Tengiz) 유전 운영사 텅기즈셰브로일(Tengizchevroil, TCO)은 지난 6일 자국내 물류 문제 발생으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했다고 밝힘
 - 최근 카자흐스탄은 유혈사태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태는 자국 내 연료 가격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촉발됨
 - TCO는 미국 셰브론 50%, 미국 엑손모빌 25%, 카자흐스탄 카즈무나이 가스 20%, 러시아 루크오일 5%로 각각 지분이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 작업은 지속되고 있으나 물류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량 조정이 발생했다고 언급함
- ▶ 카자흐스탄은 약 일일 160만 배럴의 원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구소련 연방 중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원유 생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플랫츠는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량이 2024년 200만 b/d, 2030년 26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텅기즈 유전은 450억 달러를 투자하는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텅기즈 유전의 생산능력은 현재 60만 b/d이나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까지 85만 b/d로 증대될 계획임

자료: <https://www.spglobal.com/platts/ko/market-insights/latest-news/oil/010922-kazakhstans-tengiz-oil-field-operator-says-resuming-normal-output-after-protests>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중국, 자국 쿼터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1월 항공유 수출 증대시킬 계획

- ▶ 중국 석유회사들은 내수 수요 둔화로 인해 자국의 석유제품 수출 쿼터 감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1월 항공유 수출을 백만 톤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의 2021년 12월 항공유 수출량은 약 72만 톤 수준이었으며, 2022년 1월에는 약 114만 톤의 항공유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1월 중국 국영 석유사들의 수출 예정량은 시노펙(Sinopec)과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각각 약 40만 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15만 톤, 시노켄(Sinochem) 11만 톤 등으로 추정됨
- ▶ 중국은 2022년 휘발유, 경유, 항공유 수출 쿼터의 1차 할당량을 전년 대비 56% 삭감된 약 1,300만 톤으로 책정하였으나, 아시아 지역 수요 강세와 자국 내 이동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함
 - 중국 정부가 춘절 연휴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1월 항공유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5~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요인을 원천 봉쇄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자국 내 항공 수요는 타 국가에 비해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s://www.spglobal.com/platts/ko/market-insights/latest-news/oil/011322-china-to-raise-jet-fuel-exports-in-jan-despite-lower-quota-as-domestic-demand-falls>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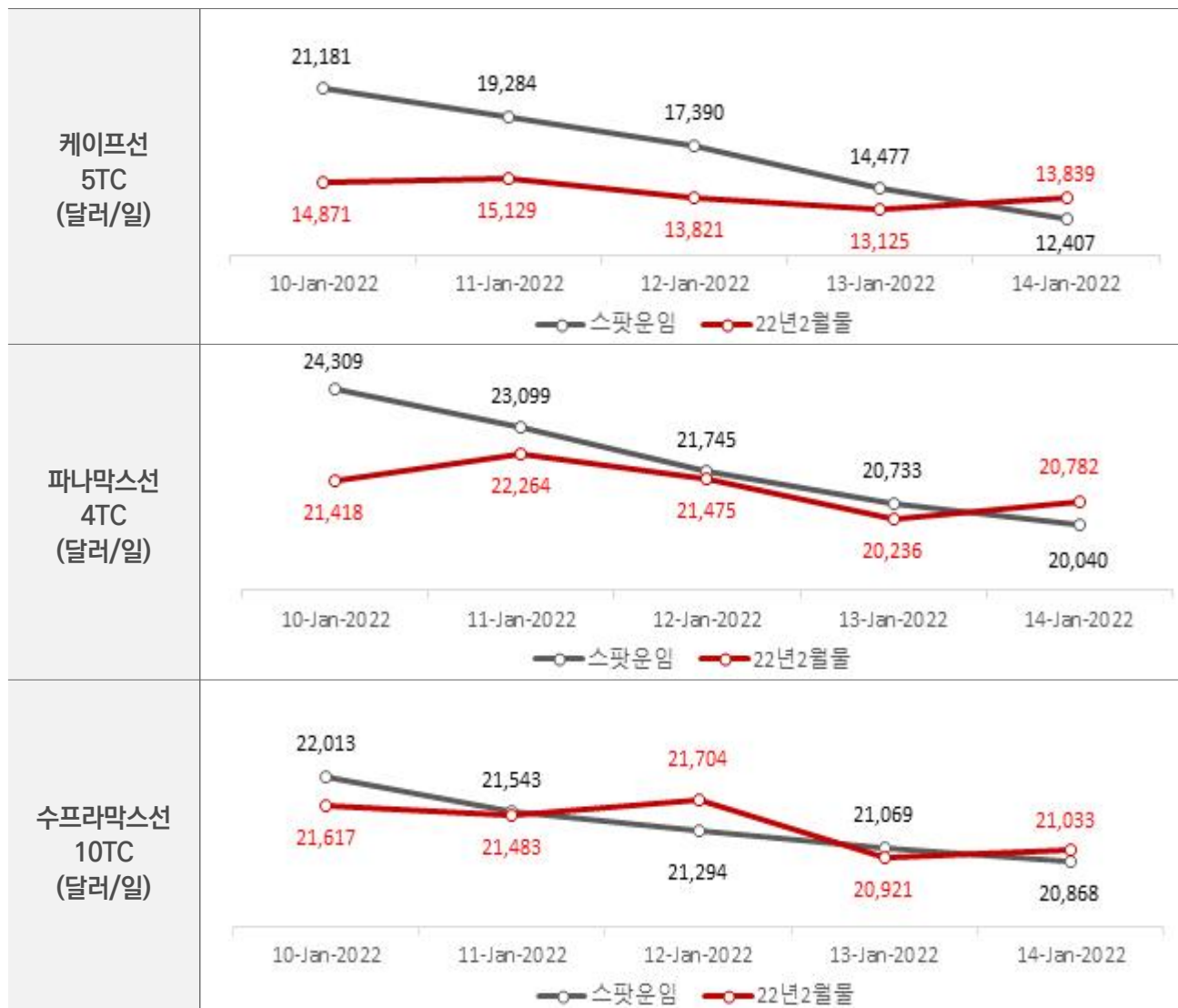
1 주간평균운임전망

▲ 상승 ▼ 하락 - 혼조

| 구분 | 1월 3주(전망) | | 1월 2주 | | | | | | |
|----------------------|-----------|-----|--------|--------|--------|---------|-------------------|----------------------|----------------|
| | 인공지능 | 시계열 | 주간평균운임 | 전주대비차이 | | | FFA 2월물 주간평균가격 | 전주대비차이 ¹⁾ | |
| 케이프선 5TC (달러/일) | - | ▼ | 16,948 | ▼ | -2,621 | -13.4 % | 14,157 | ▼ | -2,770 -16.4 % |
| 파나마선 4TC (달러/일) | ▼ | ▼ | 21,985 | ▼ | -3,333 | -13.2 % | 21,235 | ▼ | -2,629 -11.0 % |
| 수프라막선 10TC (달러/일) | ▼ | ▼ | 21,357 | ▼ | -2,217 | -9.4 % | 21,352 | ▼ | -1,675 -7.3 % |

주 : 1) 1월 3일 운임 미공시로 인해 1월 1주 주간 평균은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임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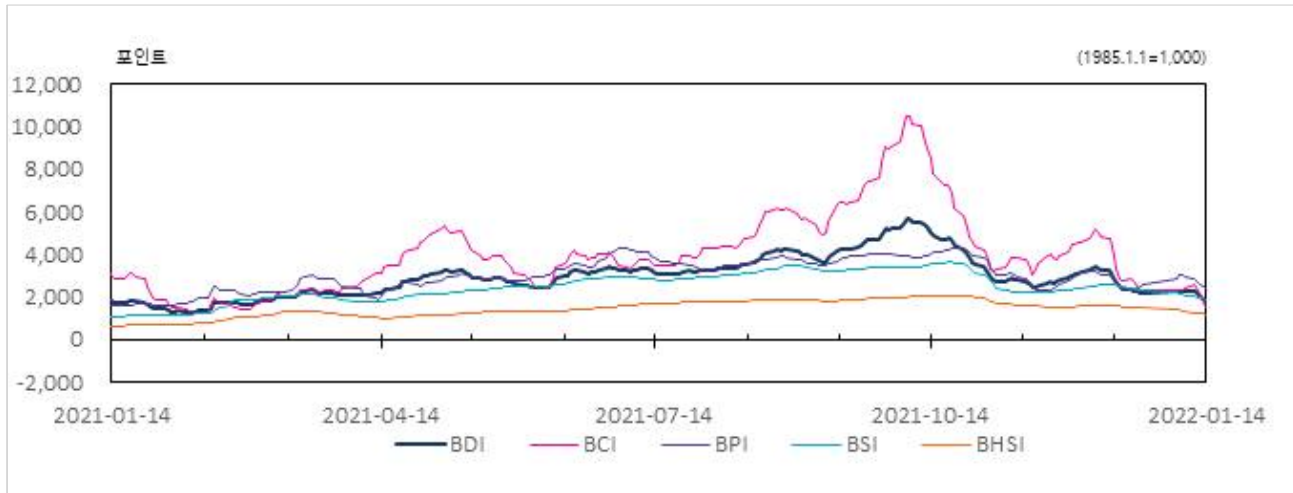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 | | 1월 2주 | 전주대비 | 2021년 | | | 2020년 | | |
|---------------------------|-------------|-----------|--------|------------|--------|--------|--------|--------|--------|
| | | |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 | | | | | | | | |
| 선형별 운임 | 운임지수 BDI | 2,018 | -271 | 1,303 | 5,650 | 2,943 | 393 | 2,097 | 1,066 |
| | 케이프(5TC) | 16,948 | -2,621 | 10,304 | 86,953 | 33,277 | 1,992 | 34,896 | 13,073 |
| | 파나막스(4TC) | 21,985 | -3,333 | 10,936 | 37,616 | 25,543 | 3,345 | 15,079 | 8,587 |
| | 수프라막스(10TC) | 21,357 | -2,217 | 11,242 | 39,860 | 26,740 | 4,208 | 11,631 | 8,189 |
| | 핸디(7TC) | 22,130 | -2,299 | 11,695 | 37,109 | 25,702 | 4,108 | 12,205 | 8,003 |
| 1년 용선료 | 케이프 | 23,750 | -2,625 | 13,500 | 31,250 | 19,538 | 10,125 | 23,000 | 16,623 |
| | 파나막스 | 22,675 | -700 | 10,125 | 26,875 | 14,781 | 8,425 | 14,750 | 11,191 |
| | 수프라막스 | 22,500 | -875 | 9,500 | 23,625 | 13,484 | 8,250 | 12,500 | 10,349 |
| | 핸디 | 19,625 | -375 | 8,063 | 18,625 | 11,272 | 7,313 | 9,250 | 8,428 |
| 건화물선 시장(FFA) | | | | | | | | | |
| | | 2022년 2월물 | | 2022년 1분기물 | | 2022년물 | | 2023년물 | |
| | | 1월 2주 | 전주대비 | 1월 2주 | 전주대비 | 1월 2주 | 전주대비 | 1월 2주 | 전주대비 |
| 선형별 운임 평가치 | 케이프(5TC) | 14,157 | -2,770 | 21,958 | -1,249 | 19,287 | -235 | 17,162 | -38 |
| | 파나막스(4TC) | 21,235 | -2,629 | 23,258 | -1,156 | 16,320 | 267 | 16,320 | 267 |
| | 수프라막스(10TC) | 21,352 | -1,675 | 23,222 | -622 | 16,192 | 128 | 13,306 | 146 |
| | 핸디(7TC) | 21,603 | -1,560 | 22,020 | -680 | 15,405 | 371 | 12,973 | 32 |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의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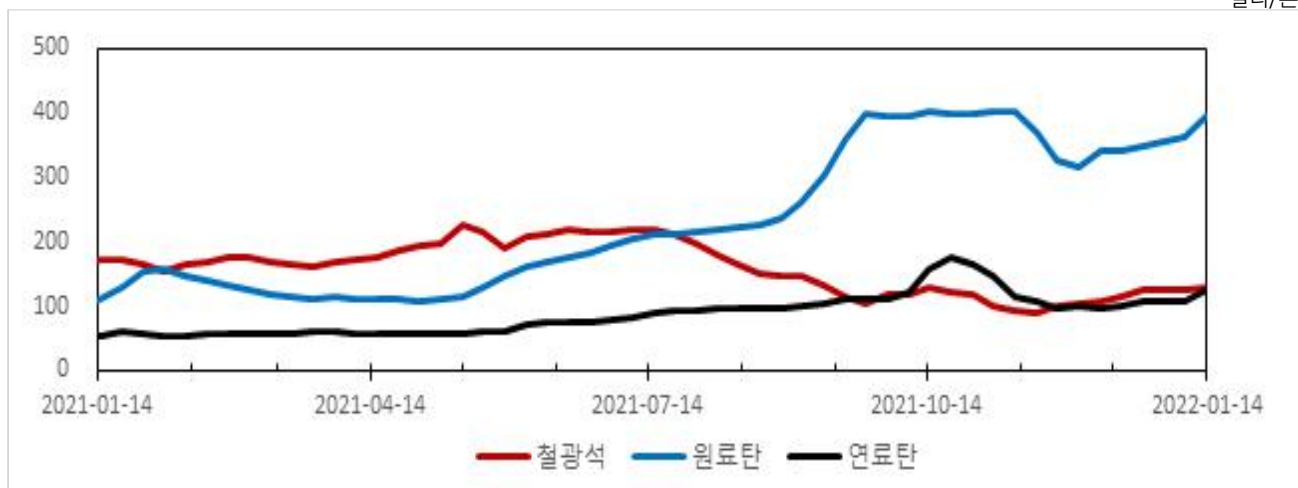
| 구분 | 2022년 | | | | | | 2021년 | | | |
|-----|-------|-------|--------|------|---|--|-------|-------|-------|-------|
| | 1월 2주 | 1월 1주 | 전주대비차이 | | | | 1월 1주 | 연평균 | 최저 | 최고 |
| 철광석 | 129.3 | 125.2 | ▲ 4.1 | 3.3 | % | | 169.3 | 161.1 | 89.8 | 226.5 |
| 원료탄 | 394.0 | 364.3 | ▲ 29.8 | 8.2 | % | | 102.2 | 220.5 | 102.2 | 403.0 |
| 연료탄 | 125.2 | 107.5 | ▲ 17.7 | 16.4 | % | | 52.2 | 84.3 | 52.0 | 175.4 |
| 대두 | 505.4 | 506.7 | ▼ -1.3 | -0.3 | % | | 496.1 | 500.6 | 444.3 | 589.0 |
| 옥수수 | 234.9 | 237.2 | ▼ -2.3 | -1.0 | % | | 193.8 | 224.2 | 185.1 | 278.4 |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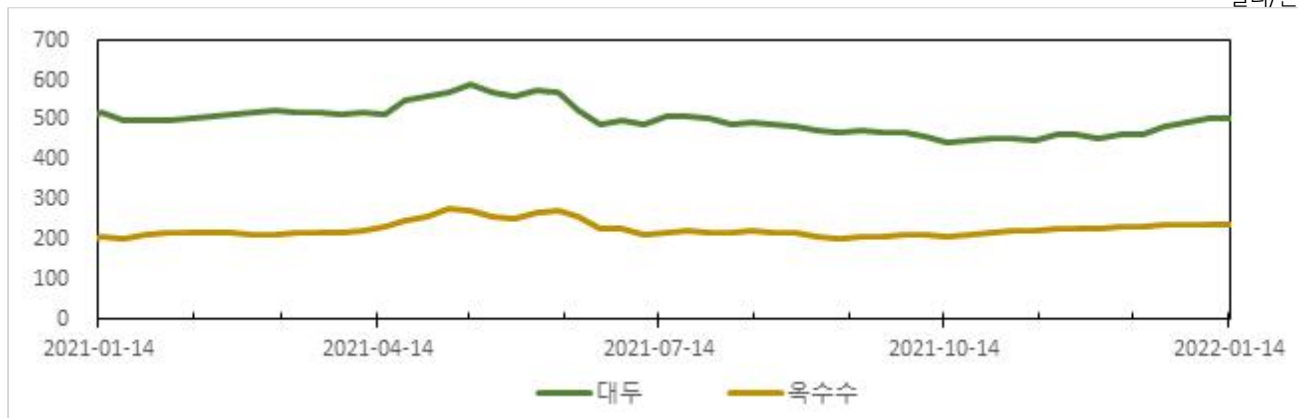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케이프선 : 지난 주(1월 1주) 대비 13.4% 하락한 16,948달러/일 기록

(운임) 철광석에 대한 중국의 수요 약세 및 시장에 신규화물 유입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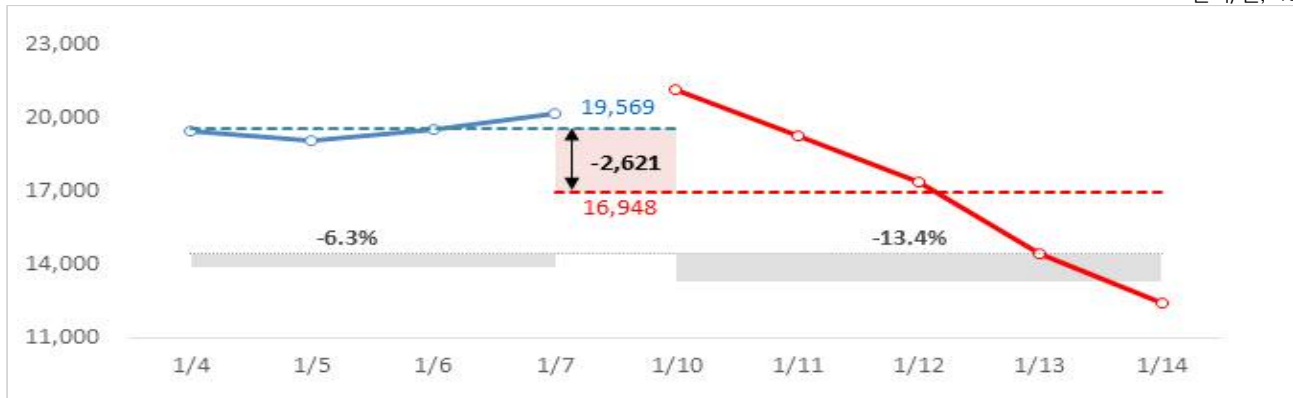
-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따른 철강 원재료에 대한 수요 감소 및 브라질의 기상 악화로 인해 운임이 하락함

(동향) 운임 상승·하락요인 혼재, 브라질 폭우로 주요 광산 운영 및 석탄 터미널 운영 중단

- 지난 2주 동안 브라질에 내린 폭우로 인해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에 위치한 주요 광산 운영이 중단됨
- 1월 8일 브라질 광업청(ANM, The National Mining Agency)은 발로렉(Vallourec, 프랑스 강관 생산기업) 관할 댐이 범람해 인근 교통을 마비시키자 철광석 광산 운영의 잠정 중단 명령과 벌금 5,160만 달러를 부과함
- 이를 후(1월 10일) 브라질 발레사는 폭우로 인해 자사가 운영하는 비토리아 미나스 철광석 철도(EFVM, Estrada de Ferro Vitoria a Minas) 운송을 일시 중단하며, 이 기간에 브루쿠투(Brucutu) 철광석 광산과 마리아나 광산 단지(Mariana Mining Complex) 운영도 중단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힘
- 브라질 우지미나스(Usiminas)와 브라질 씨에스엔(CSN) 제철소도 폭우로 인해 동 지역에 위치한 철광석 광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며, 특히 씨에스엔 제철소는 폭우로 인해 카자드페드라(Casa de Pedra) 광산과 이타구아 이 석탄 터미널(Itaguai) 운영도 함께 중단했다고 밝힘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 구분 | 1월 2주 | 1월 1주 | 전주대비차이 | |
|-----------|---------|--------|----------|--------|
| BCI | 2,044 | 2,360 | ▼ -316 | -13.4% |
| 스팟운임(5TC) | 16,948 | 19,569 | ▼ -2,621 | -13.4% |
| 용선료 | 6개월 | 21,250 | ▼ -4,125 | -16.3% |
| | 1년 | 23,750 | ▼ -2,625 | -10.0% |
| | 5년 | 18,250 | ▼ -750 | -3.9% |
| FFA | 22년 2월물 | 14,157 | ▼ -2,770 | -16.4% |
| | 22년 1분기 | 21,958 | ▼ -1,249 | -5.4% |
| | 22년 | 19,287 | ▼ -235 | -1.2%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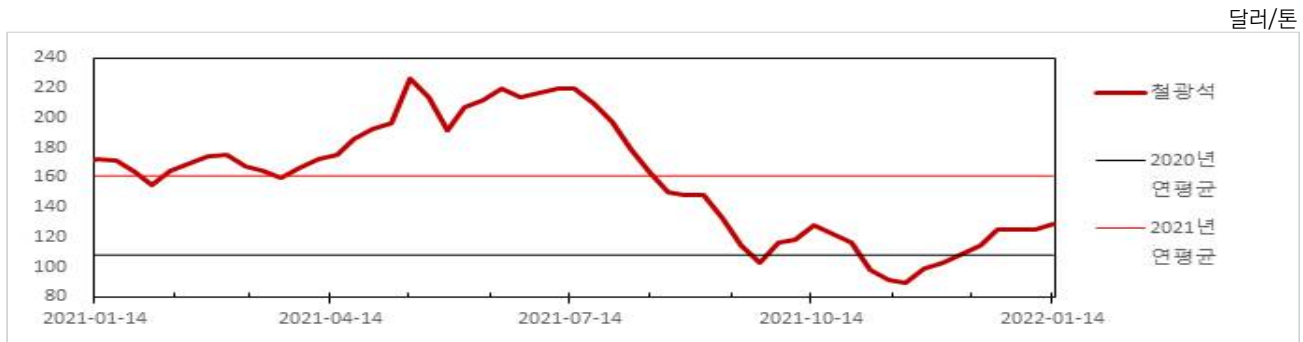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지난 주 대비 3.3% 상승한 129.3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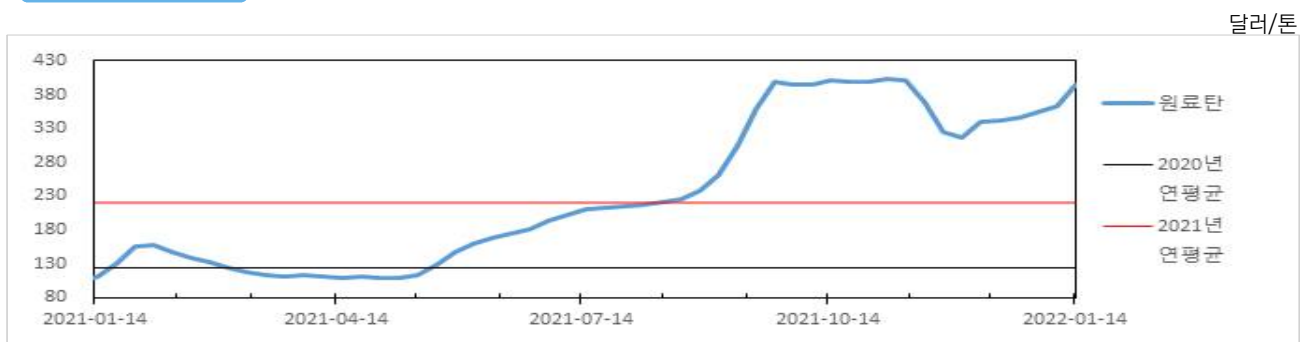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달러/톤

| 구분 | 철광석 가격 | 전주대비차이 | | |
|--------|--------|--------|------|--------|
| 12월 3주 | 114.6 | ▲ | 6.1 | 5.7 % |
| 12월 4주 | 125.3 | ▲ | 10.8 | 9.4 % |
| 1월 1주 | 125.2 | ▼ | -0.1 | -0.1 % |
| 1월 2주 | 129.3 | ▲ | 4.1 | 3.3 % |

■ 원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8.2% 상승한 394.0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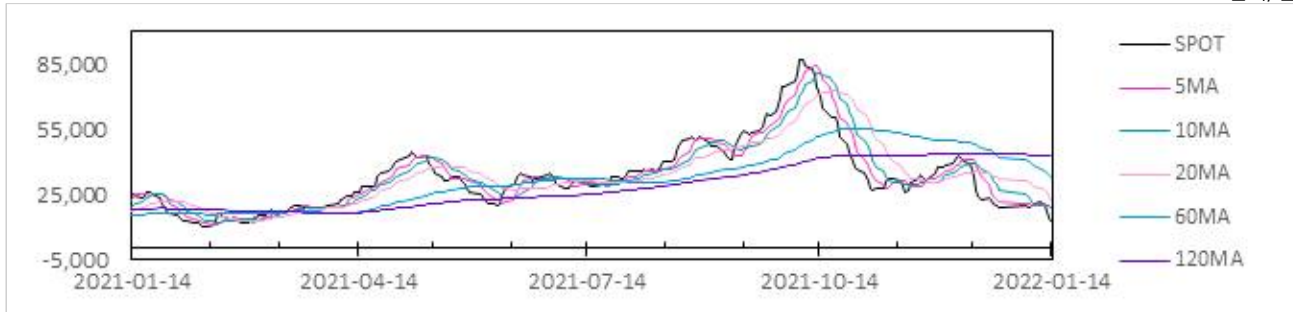
| 구분 | 원료탄 가격 | 전주대비차이 | | |
|--------|--------|--------|------|-------|
| 12월 3주 | 341.4 | ▲ | 1.6 | 0.5 % |
| 12월 4주 | 347.1 | ▲ | 5.7 | 1.7 % |
| 1월 1주 | 364.3 | ▲ | 17.2 | 4.9 % |
| 1월 2주 | 394.0 | ▲ | 29.8 | 8.2 % |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3 케이프선-운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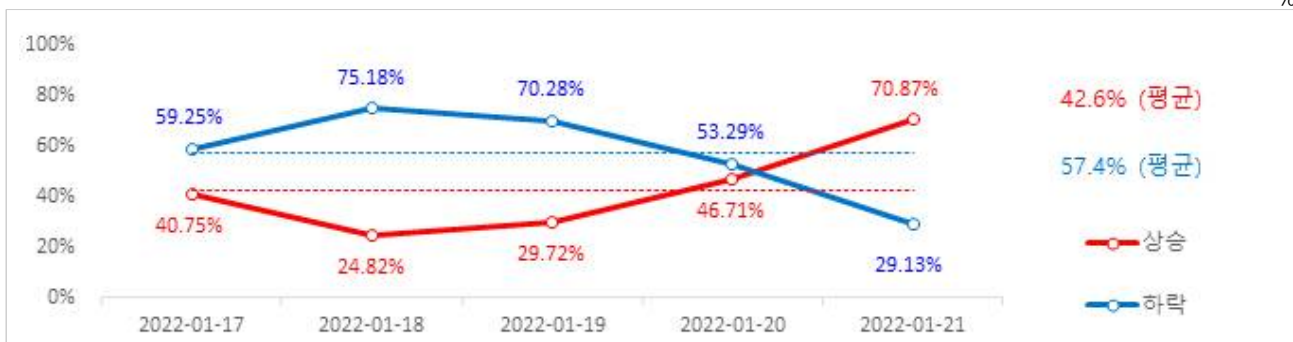
| 1월 3주('22.1.17~'22.1.21)

| 구분 | 인공지능 | 시계열 |
|-----------|------|-----|
| 케이프선(5TC) | - | ▼ |

I (인공지능) 케이프선 운임 혼조 전망

인공지능 모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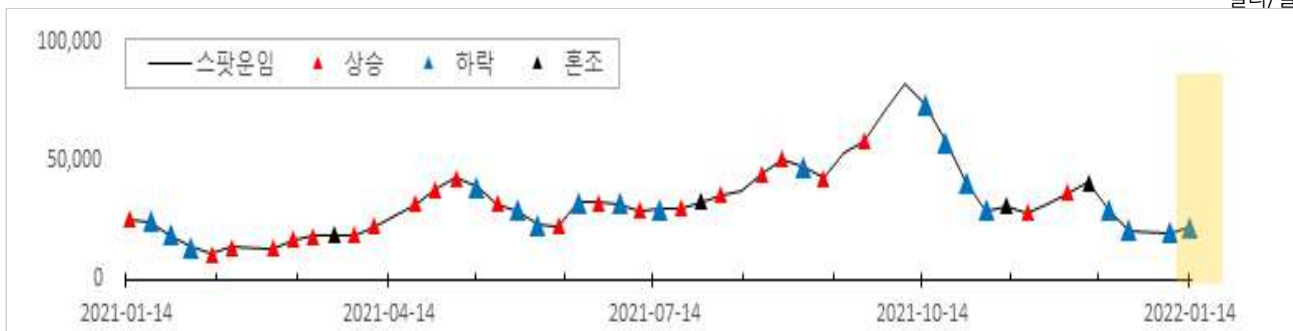
%



I (시계열) 케이프선 운임 하락 전망

스팟운임과 시계열 모형전망

달러/일



주: '20년 5월부터 시계열 모형의 전망(상승: 붉은색, 하락: 파란색), 배경이 노란색으로 음영처리된 부분이 이번 주 전망임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 파나마스선 : 지난 주(1월 1주) 대비 13.2% 하락한 21,985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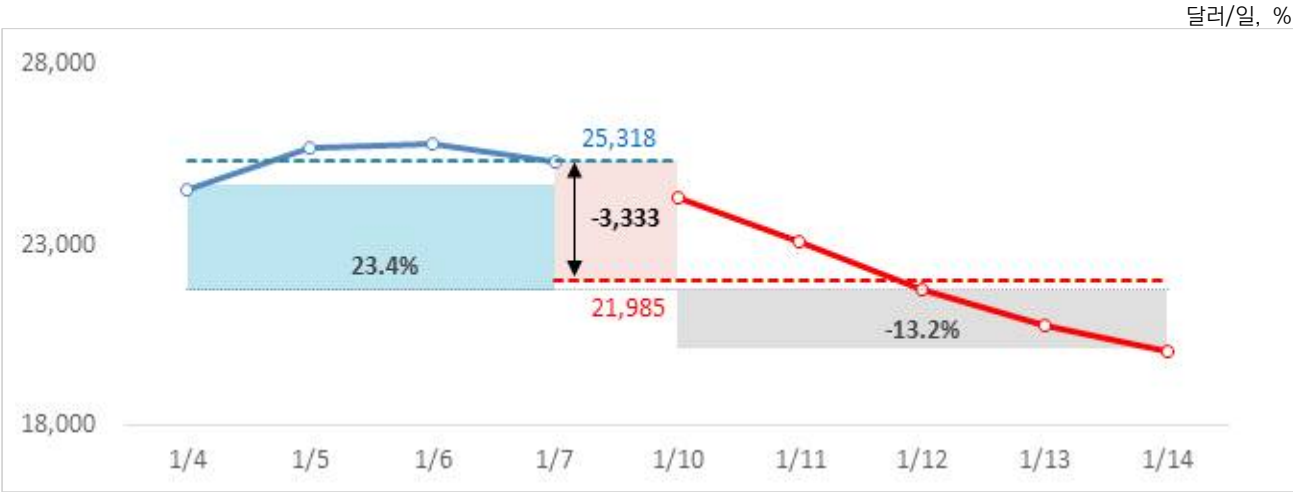
(운임) 시장에 공급되는 선박 증가로 인해 운임 하락

- 브라질 등 남미에서 곡물 수출 시즌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선박 수가 증가해 운임이 하락함

(동향) 운임 하락요인 우세,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제한 완화에도 관망세, 로사리오항 선박 적재량 제한

- 지난 1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지 2주 만에 선박(37척) 출항을 허가하는 등 일정 부분 조치가 완화됨
- 하지만 출항 허가를 받은 37척 중 16척은 석탄 적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의무(DMO)를 충족하지 못해 출항 대기 상태 중이며, 나머지 2척은 아직 석탄을 적재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곡물 수출항의 수심이 얕아져 선박에 적재 가능한 화물량을 70% 이내로 제한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마스선 운임

| 구분 | | 1월 2주 | 1월 1주 | 전주대비차이 | |
|-----------|---------|--------|--------|----------|---------|
| BPI | | 2,591 | 2,962 | ▼ -371 | -12.5 % |
| 스팟운임(4TC) | | 21,985 | 25,318 | ▼ -3,333 | -13.2 % |
| 용선료 | 6개월 | 24,125 | 27,750 | ▼ -3,625 | -13.1 % |
| | 1년 | 22,675 | 23,375 | ▼ -700 | -3.0 % |
| | 5년 | 13,750 | 14,000 | ▼ -250 | -1.8 % |
| FFA | 22년 2월물 | 21,235 | 23,864 | ▼ -2,629 | -11.0 % |
| | 22년 1분기 | 23,258 | 24,414 | ▼ -1,156 | -4.7 % |
| | 22년 | 16,320 | 16,053 | ▲ 267 | 1.7 %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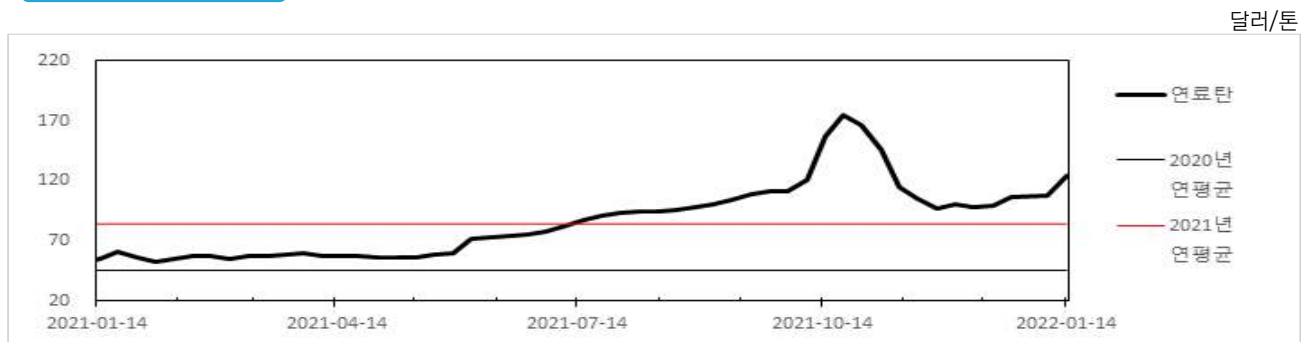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16.4% 상승한 125.2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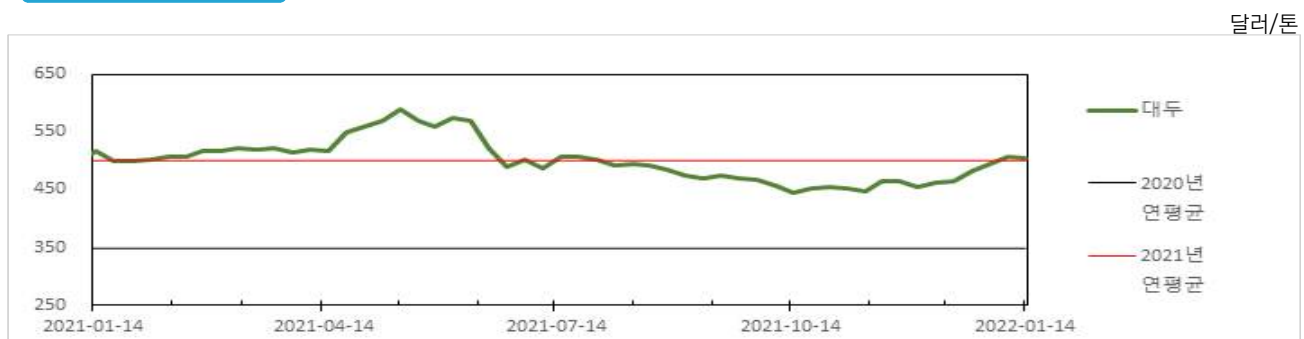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두 가격 : 지난 주 대비 4.6% 상승한 505.4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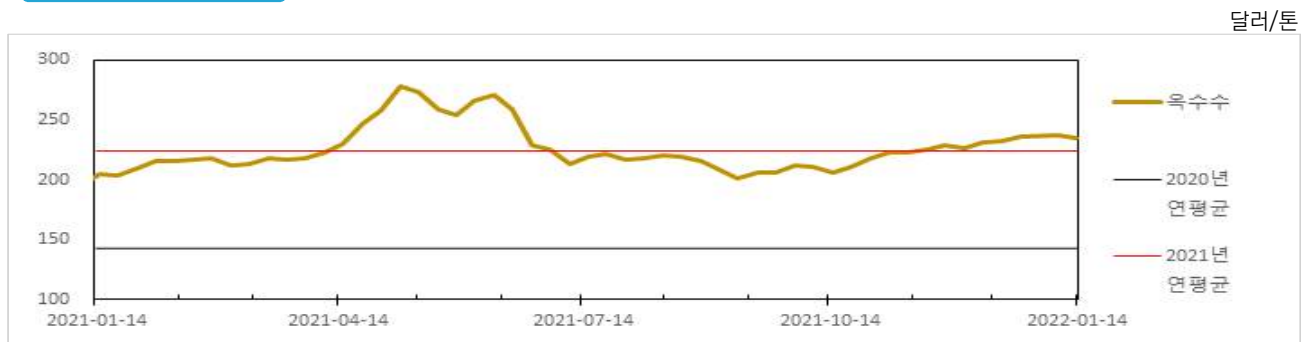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파나마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지난 주 대비 0.4% 하락한 234.9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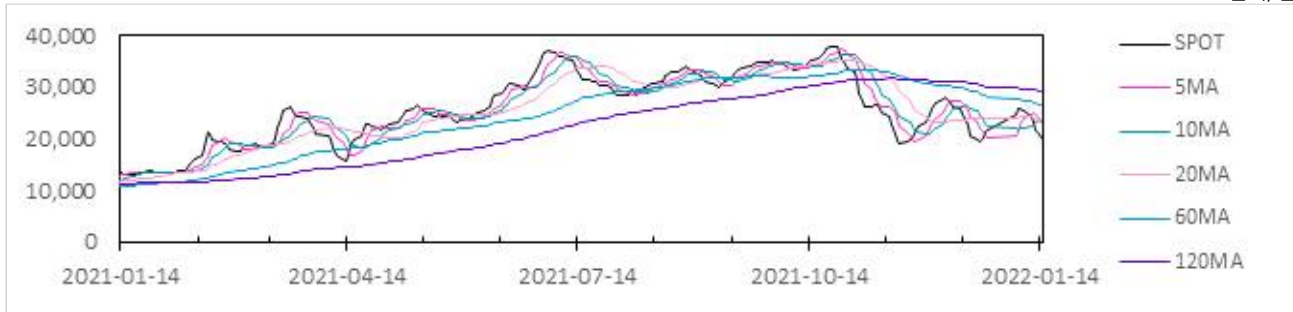
| 구분 | 옥수수 가격 | 전주대비차이 | | |
|--------|--------|--------|------|---|
| 12월 3주 | 231.9 | ▲ 0.6 | 0.2 | % |
| 12월 4주 | 236.0 | ▲ 4.0 | 1.7 | % |
| 1월 1주 | 236.0 | - | - | % |
| 1월 2주 | 234.9 | ▼ -1.1 | -0.4 | % |



3 파나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3 파나막스선-운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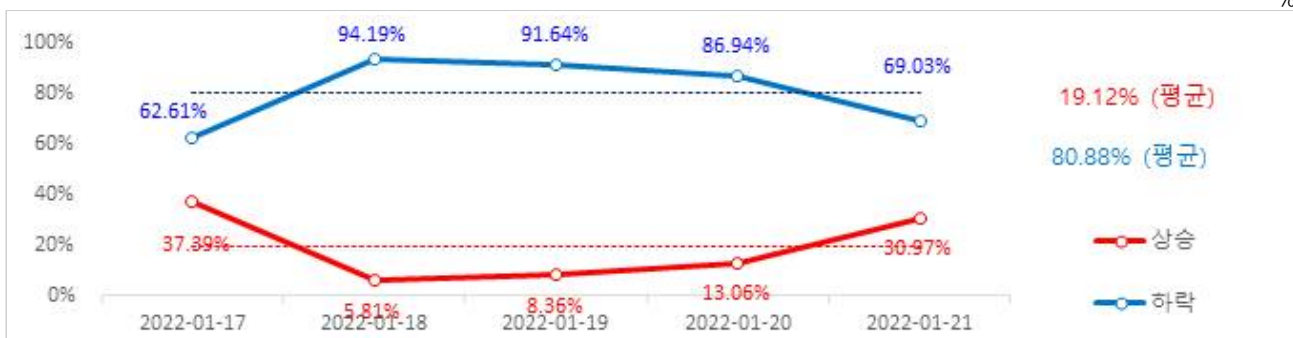
| 1월 3주('22.1.17~'22.1.21)

| 구분 | 인공지능 | 시계열 |
|------------|------|-----|
| 파나막스선(4TC) | ▼ | ▼ |

I (인공지능) 파나막스선 운임 하락 전망

인공지능 모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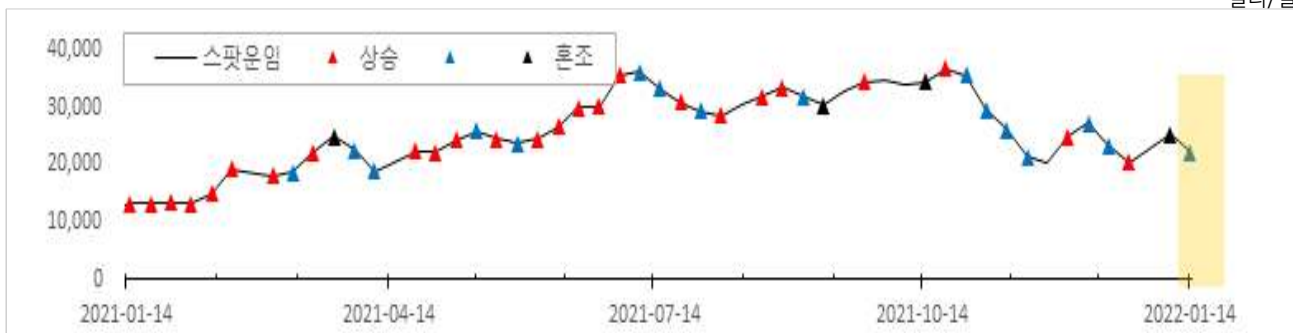
%



I (시계열) 파나막스선 운임 하락 전망

스팟운임과 시계열 모형전망

달러/일



주: '20년 5월부터 시계열 모형의 전망(상승: 붉은색, 하락: 파란색), 배경이 노란색으로 음영처리된 부분이 이번 주 전망임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수프라막스선 : 지난 주(1월 1주) 대비 9.4% 하락한 21,357달러/일 기록

(운임) 신규 화물 유입 부족으로 운임 하락

-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 완화에도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해상물동량 부족으로 운임이 하락함

(동향) 운임 하락요인 우세, 인도네시아 석탄 시장 주시

- 인도네시아 정부가 1월 1일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량 15일분이 확보되자 우선공급 의무(DMO)를 충족한 기업에만 선박 출항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힘
- 로이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월 DMO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해양투자부(The Maritime and Investment Ministry)는 국영전력공사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DMO를 이행하지 않은 광산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 구분 | | 1월 2주 | 1월 1주 | 전주대비차이 | |
|------------|---------|--------|--------|----------|--------|
| BSI | | 1,941 | 2,143 | ▼ -202 | -9.4 % |
| 스팟운임(10TC) | | 21,357 | 23,574 | ▼ -2,217 | -9.4 % |
| 용선료 | 6개월 | 24,375 | 25,000 | ▼ -625 | -2.5 % |
| | 1년 | 22,500 | 23,375 | ▼ -875 | -3.7 % |
| | 5년 | 11,000 | 11,000 | - 0 | 0.0 % |
| FFA | 22년 2월물 | 21,352 | 23,027 | ▼ -1,675 | -7.3 % |
| | 22년 1분기 | 23,222 | 23,844 | ▼ -622 | -2.6 % |
| | 22년 | 16,192 | 16,065 | ▲ 128 | 0.8 %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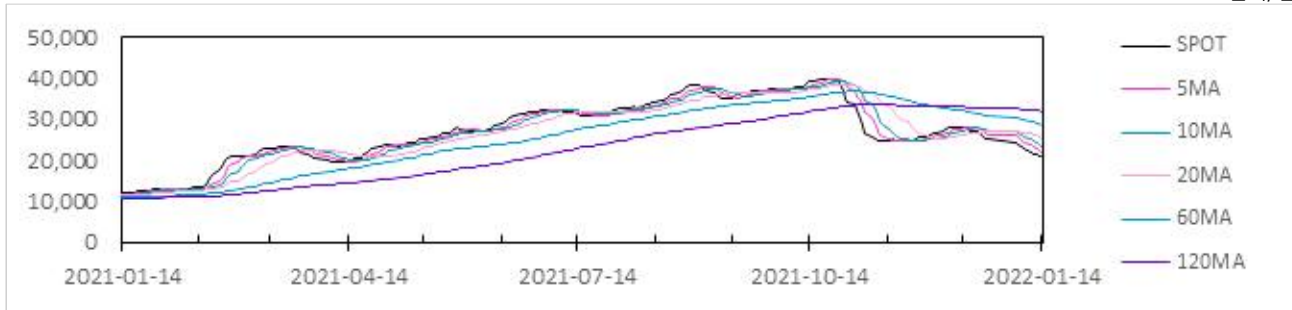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3 수프라막스선-운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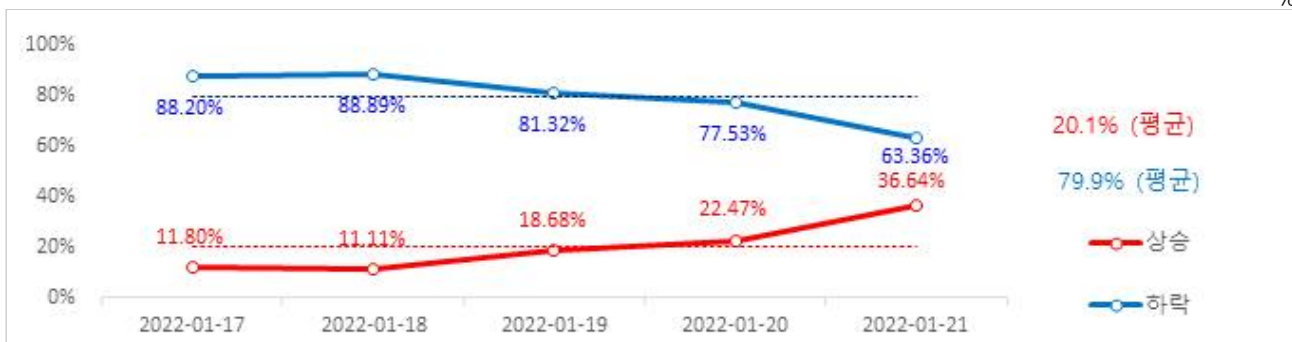
| 1월 3주('22.1.17~'22.1.21)

| 구분 | 인공지능 | 시계열 |
|--------------|------|-----|
| 수프라막스선(10TC) | ▼ | ▼ |

I (인공지능) 수프라막스선 운임 하락 전망

인공지능 모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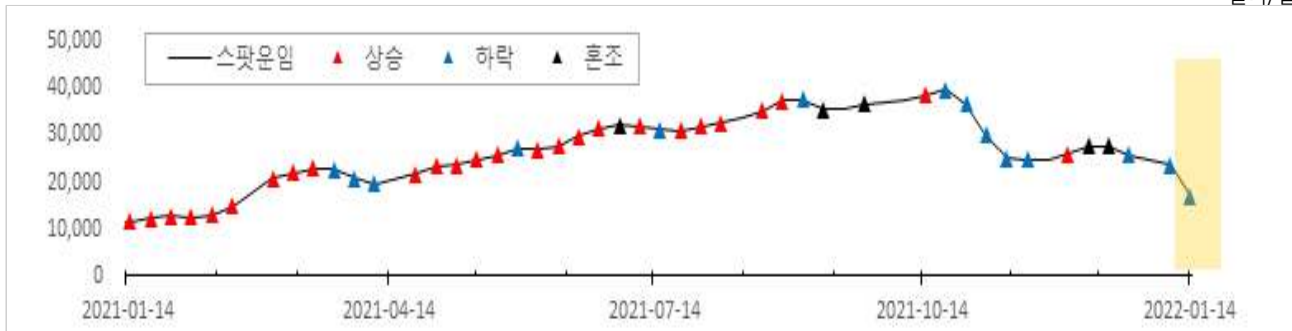
%



I (시계열) 수프라막스선 운임 하락 전망

스팟운임과 시계열 모형전망

달러/일



주: '20년 5월부터 시계열 모형의 전망(상승: 붉은색, 하락: 파란색), 배경이 노란색으로 음영처리된 부분이 이번 주 전망임



3. 컨테이너선

최건우 전문연구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 주 대비 15.24 하락한 5,094.36을 기록

(운임) 운임 하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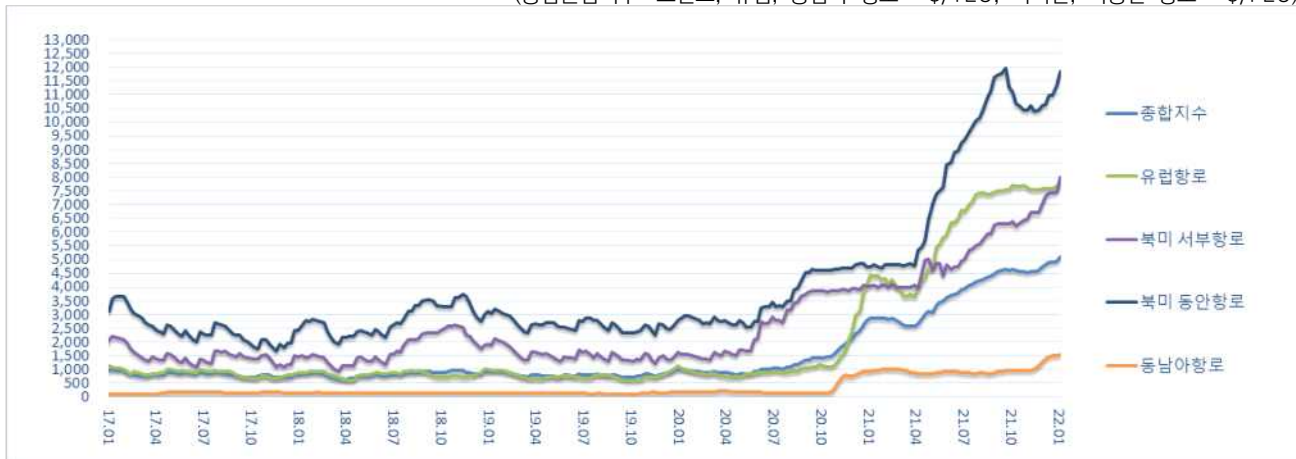
- 원양항로에서는 유럽 및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이 하락하였으나 인트라항로는 싱가포르 운임을 제외한 부산 및 일본 운임이 상승함. 특히 북미 동부와 남미 운임 하락폭이 크나 춘절 이후까지 지속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함

(현황) 유럽 항만 혼잡 지속

- 세계 주요 항만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체가 심각하며 유럽도 야드 장치율 상승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머스크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펠릭스토우항의 야드 장치율은 96%에 달하며 평균 대기일수도 7~10일로 조사됨
- 이외에 함부르크 유로게이트 터미널은 장치율은 103%, 앤트워프의 MPET는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일수는 2~3일로 조사됨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 | | 1월 2주 | 전주대비 | 2022년 | | | 2021년 | | |
|----------|-------|---------|--------|---------|--------|--------|-------|--------|-------|
| | | |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 컨테이너선 시장 | | | | | | | | | |
| 종합운임지수 | SCFI | 5,094.4 | -15.24 | 5,094.4 | 5,109 | 5,102 | 2,570 | 4,956 | 3,769 |
| 운임 | 유럽항로 | 7,797 | 20 | 7,777 | 7,797 | 7,787 | 3,651 | 7,714 | 6,078 |
| | 미서안항로 | 7,994 | - | 7,994 | 7,994 | 7,994 | 3,931 | 7,444 | 5,317 |
| | 미동안항로 | 11,729 | -104 | 11,729 | 11,833 | 11,781 | 4,679 | 11,976 | 8,353 |
| | 한국항로 | 456 | 24 | 432 | 456 | 444 | 184 | 386 | 286 |
| | 일본항로 | 288 | 12 | 276 | 288 | 282 | 251 | 340 | 285 |
| | 동남아항로 | 1,523 | -14 | 1,523 | 1,537 | 1,530 | 840 | 1,494 | 9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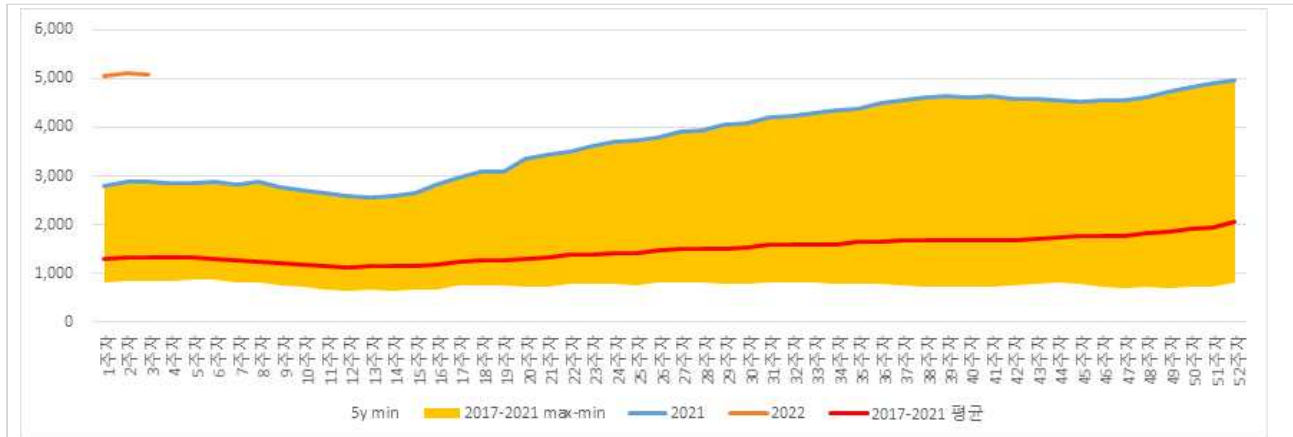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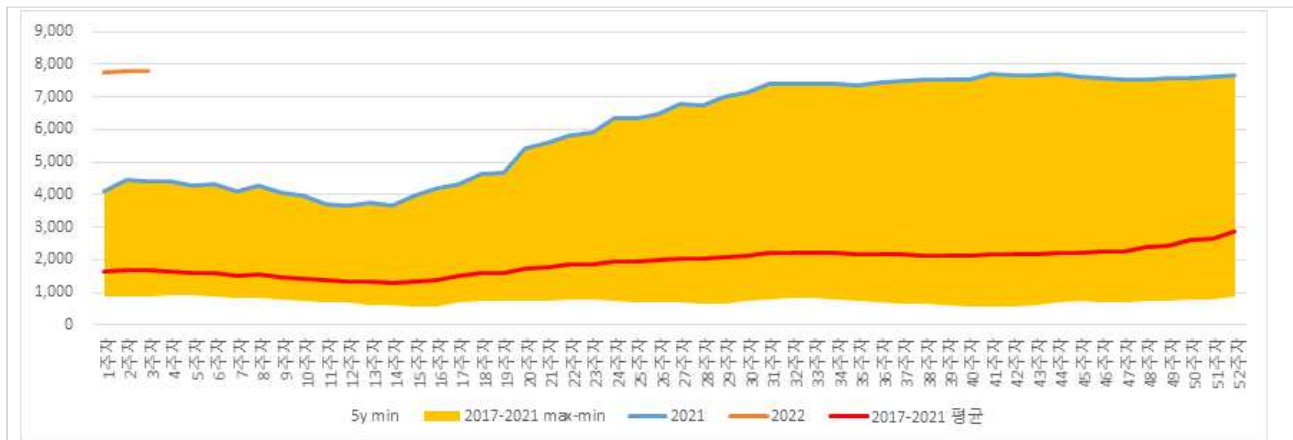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1월 3주('22.1.17~'2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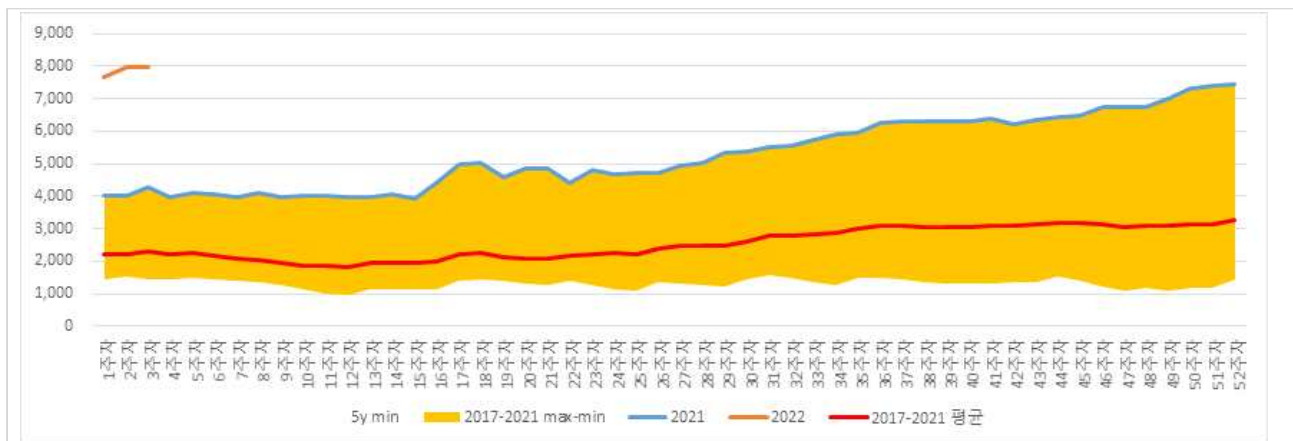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미 서부)은 공급망 충격으로 고운임 유지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I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1월 1주) 대비 0.7p 하락한 36.4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 운임지수(WS)가 하락함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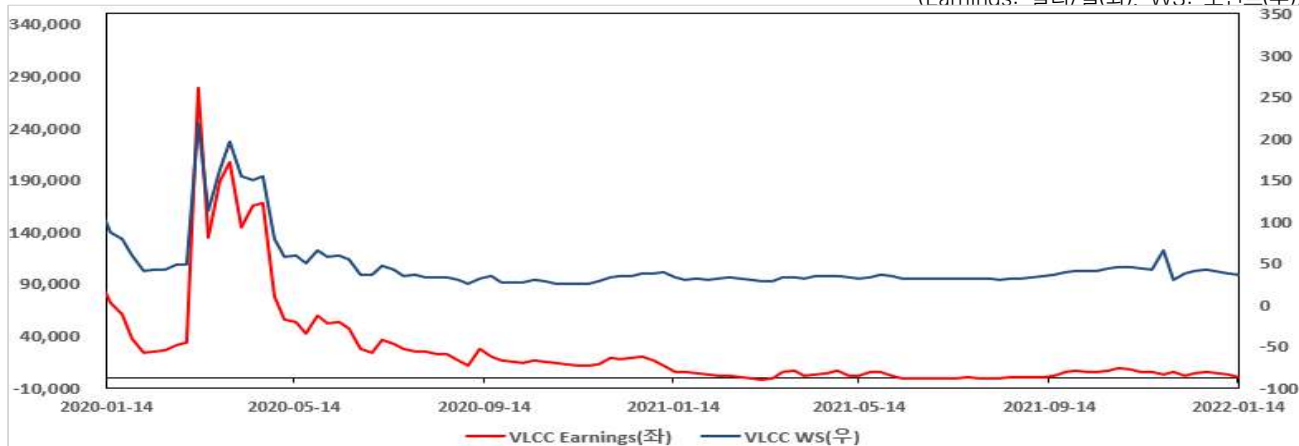
| 구분 | 1월 2주(WS) | 전주 대비 차이 | | |
|---|-----------|----------|-----|-------|
| 중동-중국 항로(TD3C) | 36.4 | ▼ | 0.7 | 1.9 % |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 18.0 | - | - | - % |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 36.5 | ▼ | 0.5 | 1.4 % |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 38.0 | ▲ | 0.5 | 1.2 % |

(동향)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각국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고질적인 선박 공급 과잉 현상 지속됨

- 작년 11월부터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이동 제한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원유 수요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선박 공급 과잉으로 당분간은 시황 약세가 불가피한 실정임
- 그러나 주요 에너지 기관이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주요 산유국의 증산 기조, 이란 핵 협상안 도출 등을 근거로 수급 불균형 해소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상반기 원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유조선 시황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 | | 1월 2주 | 전주대비 | 2022년 | | | 2021년 | | |
|------------|--------|--------|--------|--------|--------|--------|--------|--------|--------|
| | | |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 유조선 시장(현물) | | | | | | | | | |
| 중동-중국 | 운임지수 | 36.4 | -0.7 | 36.4 | 37.1 | 36.7 | 28.4 | 65.1 | 35.4 |
| 항로(TD3C) | 평균 수익 | -3,064 | -2,240 | -4,278 | -562 | -1,944 | -6,779 | 14,966 | -526 |
| VLCC | 1년 용선료 | 18,500 | 0 | 18,500 | 18,500 | 18,500 | 18,500 | 24,125 | 20,8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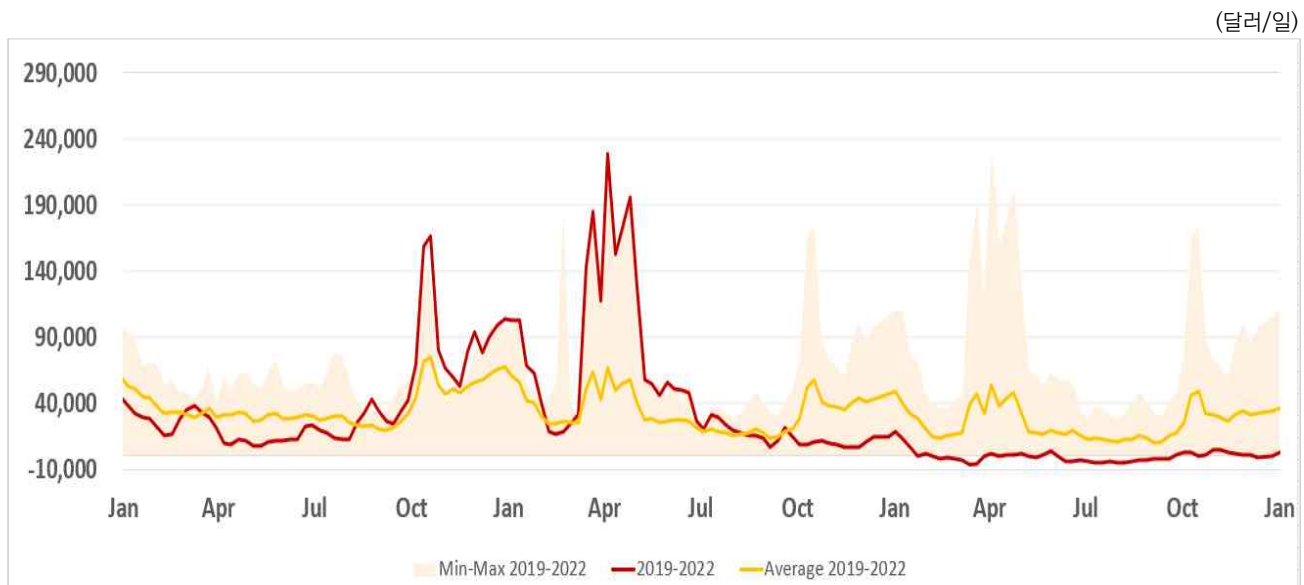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1 유조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붉은색)은 전주 대비 약 319% 하락하며 대폭 하락세를 보임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22년 1월 들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I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1월 1주) 대비 1.5p 하락한 119.8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 운임지수(WS)가 하락함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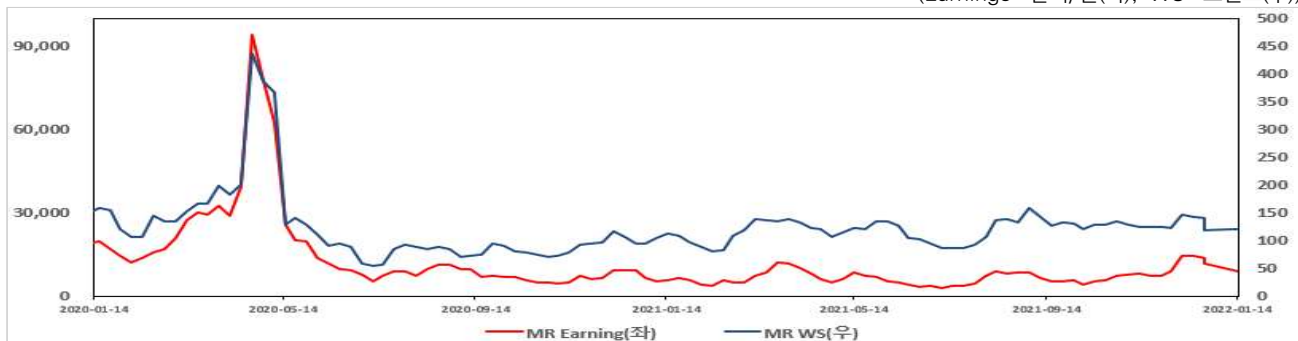
| 구분 | 1월 2주(WS) | 전주 대비 차이 | | |
|--------------------------------------|-----------|----------|------|--------|
| 인도-극동 항로 | 141.5 | ▼ | 1.5 | 1.2 % |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 85.0 | ▼ | 12.5 | 12.8 % |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 100.0 | ▼ | 2.5 | 2.5 % |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 130.0 | ▲ | 5.0 | 4.0 % |

(동향)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석유정제품 수요를 감소시키며 석유제품선 시장 악세 지속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시적일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확산 우려로 석유정제품 수요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경 폐쇄 재개로 인한 연료유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석유제품선 시장이 악세를 기록하고 있음
- EIA는 최근 발행한 1월 월간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362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7만 b/d 상향 조정된 것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근거로 올해 석유제품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임
-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 증가,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있으며,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연료유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정유사 기동률 증가, 정제마진 개선과 함께 시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 | | 1월 2주 | 전주대비 | 2022년 | | | 2021년 | | |
|------------|--------|--------|--------|--------|--------|--------|--------|--------|--------|
| | | |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 제품선 시장(현물) | | | | | | | | | |
| 인도-극동 항로 | 운임지수 | 119.8 | -1.5 | 80.6 | 160.0 | 120.1 | 80.6 | 160.0 | 120.1 |
| | 평균 수익 | 8,180 | -2,230 | 7,184 | 11,020 | 9,295 | -96 | 15,345 | 7,642 |
| MR | 1년 용선료 | 12,750 | -500 | 12,500 | 13,000 | 12,750 | 11,625 | 13,000 | 12,429 |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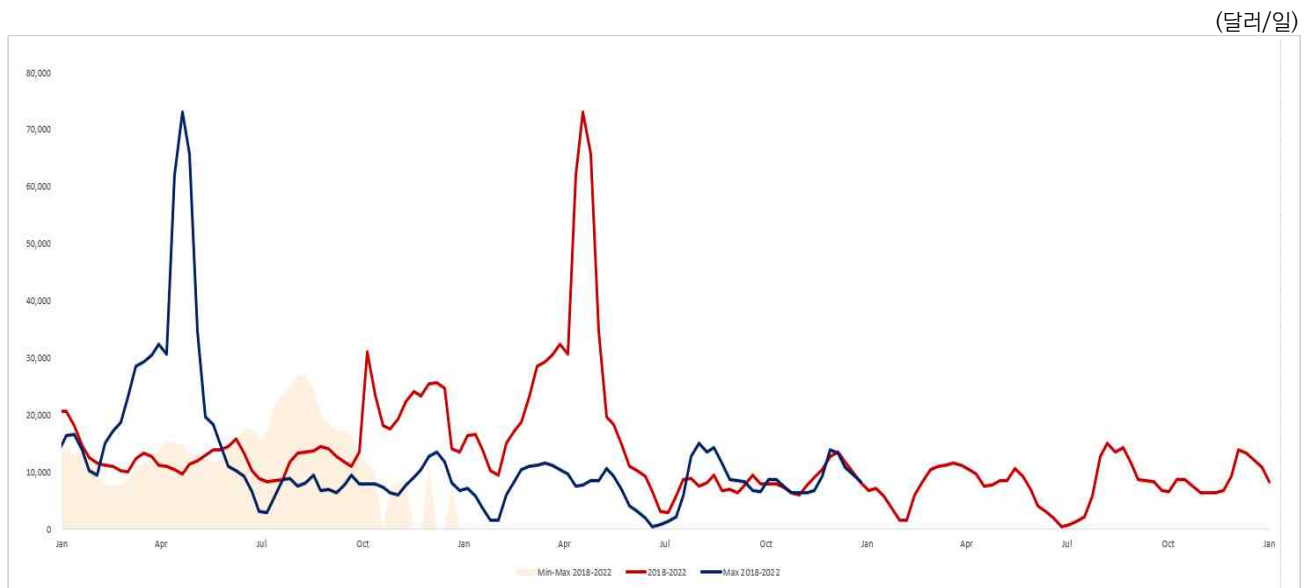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전주 대비 약 23% 수준으로 하락 추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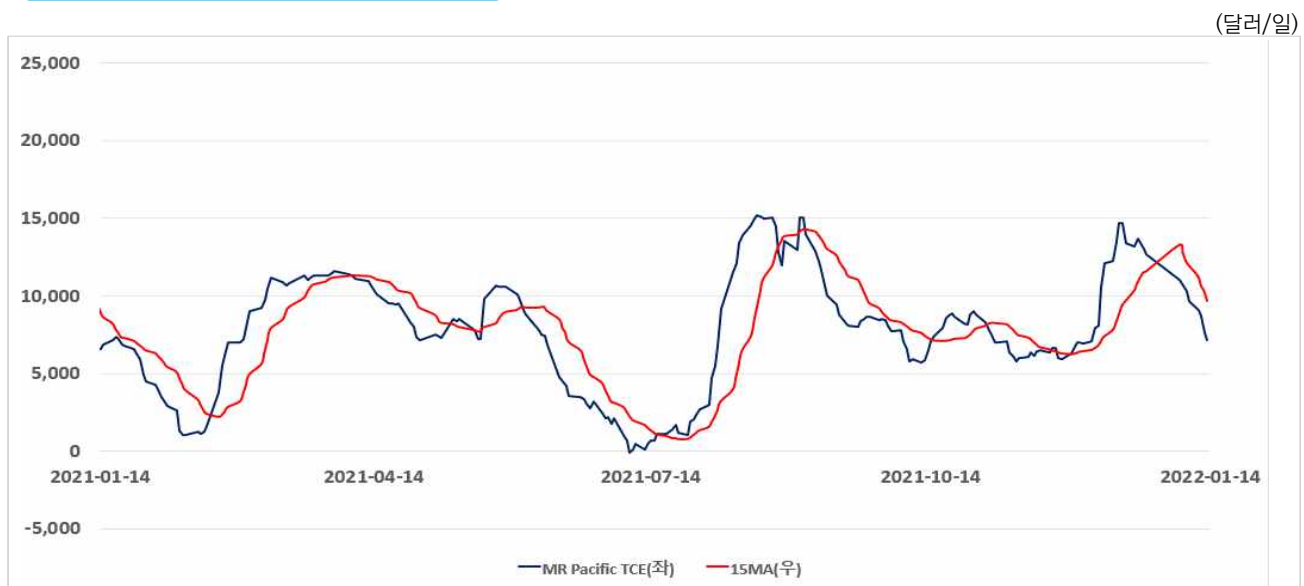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올해 1월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26.85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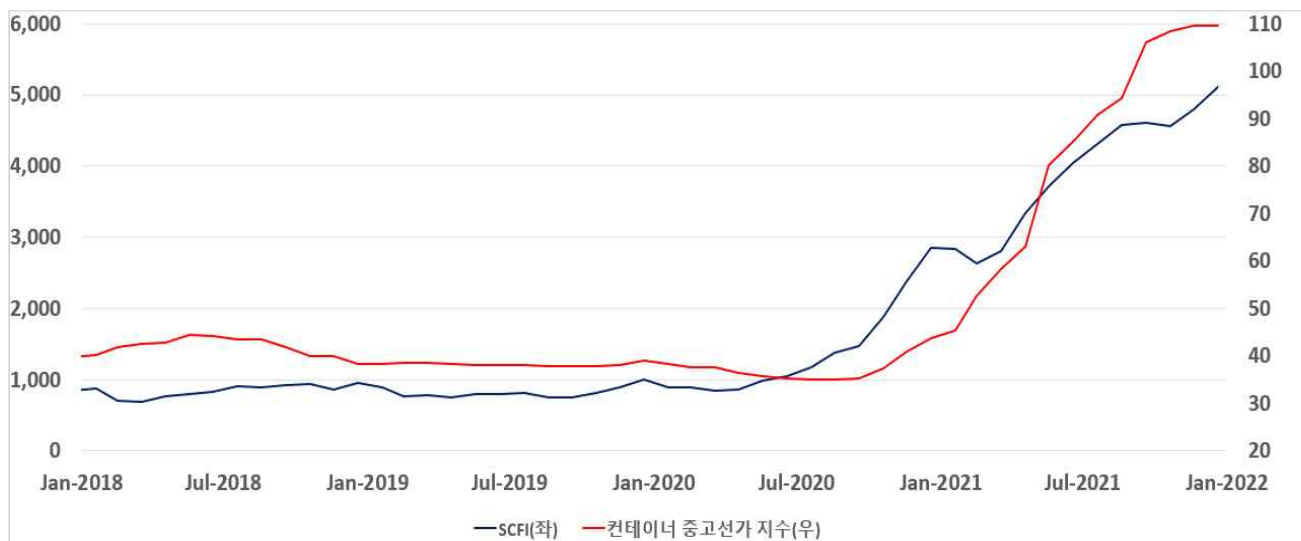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109.70으로 전월 대비 0.13p 상승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 1월 2주('22.1.1~'22.1.14)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25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 선종 | 선명 | 건조 년도 | 선형 | 단위 | 매매일자 | 가격 (백만달러) | 매도자 | 매수자 |
|-----------|---------------------|----------|---------|-------|------------|--------------|----------------------|-----------------------------|
| | Captain Nicholas ML | 2008 | 82,291 | cu.m. | 2022-01-14 | | Dorian LPG | Clients of MOL |
| Bulk | Coral Diamond | 2007 | 76,596 | DWT | 2022-01-14 | 16.00 | Kitaura Kaiun KK | Undisclosed interests |
| Bulk | Crimson Princess | 2012 | 38,395 | DWT | 2022-01-14 | 19.00 | MMSL | Undisclosed interests |
| Gas Crier | Iris Glory | 2008 | 83,700 | cu.m. | 2022-01-14 | | Avance Gas | Clients of Shintoku Kaiun |
| Container | Mount Nicholson | 2017 | 1,756 | TEU | 2022-01-14 | 45.00 | Mandarin Shipping | Asian interests |
| Gas Crier | Pampero | 2015 | 83,000 | cu.m. | 2022-01-14 | | Avance Gas | Chinese interests |
| Gas Crier | Thetis Glory | 2008 | 83,700 | cu.m. | 2022-01-14 | 47.50 | Avance Gas | Clients of Arcadia Shipping |
| Container | Belmonte Express | 2006 | 3,534 | TEU | 2022-01-13 | 50.00 | Lomar Shipping | Clients of MSC |
| Container | Cape Manila | 2011 | 2,758 | TEU | 2022-01-13 | 47.00 | Schoeller Holdings | Clients of MSC |
| Offshore | Posh Dauntless | 2013 | 6,961 | HP | 2022-01-13 | | POSH | Chinese interests |
| TankChem | PS London | 2008 | 51,246 | DWT | 2022-01-13 | 11.90 | Premuda SpA | Greek interests |
| Tanker | Tsushima | 2008 | 310,391 | DWT | 2022-01-13 | 36.50 | Meiji Shipping | Greek interests |
| Offshore | Viking Neptun | 2015 | 146 | LOA | 2022-01-12 | | Eidesvik Offshore | Clients of DEME Offshore |
| Container | Cardiff Trader | 2003 | 2,524 | TEU | 2022-01-11 | 30.00 | Lomar Shipping | Clients of MSC |
| TankChem | Gulf Moon | 2007 | 37,488 | DWT | 2022-01-11 | 7.75 | Gulf Energy Maritime | Undisclosed interests |
| Bulk | Ocean Dotey | 1995 | 70,153 | DWT | 2022-01-11 | 7.80 | Zhuo Cheng | Undisclosed interests |
| Bulk | Sparrow | 2005 | 53,459 | DWT | 2022-01-11 | 13.50 | Tiara Nvgtm | Undisclosed interests |
| Tanker | Chloe V | 2011 | 320,261 | DWT | 2022-01-07 | 42.00 | Hermes Marine Mgmt | Undisclosed interests |
| Bulk | El Sol Sale | 2002 | 75,894 | DWT | 2022-01-07 | 11.50 | Asahi Shipping | Chinese interests |
| Gas Crier | Epic St. George | 2007 | 5,018 | cu.m. | 2022-01-07 | 10.50 | BW Epic Kosan | Clients of Blue Energy & M. |
| Bulk | Tanikaze | 2013 | 56,064 | DWT | 2022-01-07 | 23.00 | Usui Kaiun Co. Ltd. | Undisclosed interests |
| Bulk | Berge Taranaki | 2019 | 36,896 | DWT | 2022-01-06 | 27.00 | ORIX Maritime Corp | Undisclosed interests |



중고선

| 선종 | 선명 | 건조 년도 | 선형 | 단위 | 매매일자 | 가격 (백만달러) | 매도자 | 매수자 |
|-----------|----------------|----------|--------|-----|------------|--------------|-------------------------|-----------------------------------|
| Offshore | Boka Da Vinci | 2011 | 115 | LOA | 2022-01-06 | | Boskalis | Undisclosed interests |
| Container | Chesapeake Bay | 2003 | 4,253 | TEU | 2022-01-06 | 55.00 | Eastern Pacific Shpg | Clients of Hapag-Lloyd Cont |
| Bulk | Longshore | 2010 | 34,399 | DWT | 2022-01-06 | 15.00 | New Trade Ship Mgmt | European interests |



주요 해운지표

6. 주요 해운지표

| 주요 해운지표 추이 | | 금주 | 전주 대비 | 1월 평균 | 2022년 | | | 2021년 | | |
|--------------------------|-------------|------|-------|-------|-------|------|------|-------|------|------|
| | | | |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 중고선가 (\$ Million) | | | | | | | | | | |
| 건화물선(5년) | Panamax | 18.0 | 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유조선(5년) | VLCC | 72.0 | -1.0 | 72.5 | 72.0 | 73.0 | 72.5 | 63.0 | 72.0 | 69.1 |
| 컨테이너선(10년) | Sub-Panamax | 44.0 | 0 | 44.0 | 44.0 | 44.0 | 44.0 | 14.0 | 44.0 | 32.5 |

자료: Clarkson

| | | | | | | | | | | |
|--------------------------|-------------|-------|-----|-------|-------|-------|-------|------|-------|------|
| 신조선가 (\$ Million) | | | | | | | | | | |
| 건화물선 | Panamax | 34.3 | 0 | 34.3 | 34.3 | 34.3 | 34.3 | 25.5 | 34.3 | 30.9 |
| 유조선 | VLCC | 113.5 | 0.5 | 113.3 | 113.0 | 113.5 | 113.3 | 85.0 | 112.0 | 98.7 |
| 컨테이너선 | Sub-Panamax | 40.5 | 0.5 | 40.25 | 40.0 | 40.5 | 40.3 | 30.0 | 40.0 | 35.8 |

자료: Clarkson

| | | | | | | | | | | |
|-----------------------|-----------|--------|------|-------|-------|-------|-------|-------|-------|-------|
| 연료유 (\$/Tonne) | | | | | | | | | | |
| 380 CST | Rotterdam | 465.3 | 19.8 | 455.4 | 445.5 | 465.3 | 455.4 | 311.3 | 488.0 | 396.2 |
| | Singapore | 478.5 | 21.8 | 467.6 | 456.8 | 478.5 | 467.6 | 324.8 | 523.5 | 416.5 |
| | Korea | 530.25 | 14.8 | 522.9 | 515.5 | 530.3 | 522.9 | 361.8 | 574.5 | 445.9 |
| | Hong Kong | 479.5 | 20.8 | 469.1 | 458.8 | 479.5 | 469.1 | 325.8 | 529.0 | 426.8 |
| VLSFO | Rotterdam | 596.8 | 29.8 | 581.9 | 567.0 | 596.8 | 581.9 | 387.8 | 605.8 | 505.6 |
| | Singapore | 674.5 | 35.0 | 657.0 | 639.5 | 674.5 | 657.0 | 413.0 | 642.5 | 535.1 |
| | Hong kong | 664.3 | 35.3 | 646.6 | 629.0 | 664.3 | 646.6 | 404.5 | 627.3 | 533.2 |

자료: Clarkson

| | | | | | | | | | | |
|---------------------|--------|--------|--------|--------|--------|--------|--------|---------|---------|---------|
| 주요 원자재가 (\$) | | | | | | | | | | |
| 철광석 (\$/Tonne) | 국제價 | - | - | | | | | 105.4 | 233.7 | 180.6 |
| | 중국産 | 160.5 | 72 | 141.6 | - | 160.6 | 141.6 | - | 264.6 | 193.0 |
| 연료탄 (\$/Tonne) | 국제價 | 126.0 | 19.2 | 113.9 | 106.8 | 126.1 | 113.9 | - | 244.3 | 127.7 |
| | 중국産 | 168.6 | 2.0 | 167.4 | 166.4 | 168.6 | 167.4 | - | 420.7 | 182.4 |
| 원료탄 (\$/Tonne) | 호주산 | 458.2 | 27.8 | 439.1 | 429.0 | 458.2 | 439.1 | - | 501.1 | 272.0 |
| | 내륙(몽골) | - | - | | | | | - | - | - |
| | 중국産 | 386.7 | 1.7 | 375.3 | 362.4 | 386.9 | 375.3 | - | 577.7 | 337.4 |
| 곡물 (센트/부셀) | 대두(국제) | 1369.8 | -31.75 | 1380.3 | 1344.0 | 1401.5 | 1380.3 | 1,188.5 | 1,642.5 | 1,372.4 |
| | 밀(국제) | 741 | -17 | 757.2 | 741.5 | 770.3 | 757.2 | 601.8 | 856.0 | 702.5 |

자료: mysteel, CBOT

| | | | | | | | | | | |
|----------------------------------|----|--------|--------|--------|----------|----------|----------|----------|--|--|
|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 | | | |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2021년 합계 | 2020년 합계 | 2019년 합계 | 2018년 합계 | | |
| ASEAN | 수출 | 9,785 | 10,546 | 11,248 | 108,50 | 89,017 | 95,086 | 100,114 | | |
| | 수입 | 5,815 | 5,745 | 6,556 | 67,703 | 54,830 | 56,186 | 59,628 | | |
| NAFTA | 수출 | 9,622 | 9,673 | 10,385 | 11,914 | 87,821 | 89,839 | 89,921 | | |
| | 수입 | 7,369 | 7,954 | 6,969 | 87,464 | 68,263 | 73,797 | 69,712 | | |
| EU | 수출 | 5,089 | 5,299 | 5,968 | 63,606 | 47,870 | 52,758 | 57,676 | | |
| | 수입 | 5,372 | 5,059 | 6,700 | 65,913 | 55,517 | 55,795 | 62,296 | | |
| BRICs | 수출 | 16,968 | 17,988 | 18,160 | 193,174 | 155,346 | 163,882 | 189,936 | | |
| | 수입 | 14,890 | 17,333 | 17,218 | 170,649 | 128,653 | 131,656 | 133,785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